

강기정 광주시장 “군공항 이전, 합리적 통큰 결단 시기”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천시 문제놓고 신속한 만남 바라

2018년 광주·전남 상생위 합의 “민심 충분히 담지 못해”

강기정 시장은 광주 군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군공항 이전지 문제와 관련, 17일 “이제는 정치 지도자·지역 리더들이 합리적인 통큰 결단을 해야 할 시기”라며 김영록 전남지

사와의 신속한 만남을 바랐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힌 뒤 “유·불리나 작은 계산만 하고 있으면 결국 시간만 지나간다”며 “빠른 시간 내 만남

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지 지원 문제에 대해 강 시장은 “전남과 협의해 제시하겠다. 협의가 당장 어렵다면 광주시의 생각 만이라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조만간 발표를 앞둔) 반도체 특화단지 문제때문이라도 만나야 한다”며 김 지사와의 신속한 만남을 거듭 바랐다.

강 시장은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접어들었다”며 “이 과정에 우리의 요구와 의견을 잘 담아 낼 것이다. 정부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이었던 만큼 이를 시행령으로 구체화 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당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합의에 대해 강 시장은 “(당시 합의는) 민심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갖고 광주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통합 등에 관한 큰 그림을 발표했다.

무안군까지 참여하는 3시간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으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협력에도 엇박자가 생겼다.

김재환기자



광양경제청 2023년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명 구성...발전방안 논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 이하 광양경제청)은 최근 광양경제청 상황실에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한 ‘2023년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투자유치 및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2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1조 7천억 원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협력을 공유하고, 광양만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미래성장산업 클러스터 구축, 산업단지 개발, 남해안 거점형 해양관광단지 육성 등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광양경제청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배중욱 정책자문위원장은 “광양경제청이 비교우위 해양관광자원과 향토문화 강점을 활용해 성장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조언을 통해 적극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광양만권에서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신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제시된 제안들을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민관합동 안전점검

19~21일 차량기지·본선 1~6공구 등 7곳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은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구간 17km로, 유촌동 차량기지와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에 이르는 본선 1~6공구까지 총 7개 건설현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흙막이 가시설 설치상태와 계측관리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배수로·침사지·사면보호시설 등 설치 상태 ▲복공 단차와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발생 여부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선 등 지하매설물 안전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중대한 위험요인은 긴급 안전조치 후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김재식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이번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17일 오전 시청 출입구에서 2023 집중안전점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 = 광주시 제공)

산불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전남도, 순천·함평 대상 신속 복구위해 최대 100%



전남도는 최근 순천, 함평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

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전과 또는 반소 주택은 100%, 그 외 토지는 50%를 지원한

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마약범죄 척결” 광주경찰청

합동단속추진단 운영 돌입

형사·수사·정보 등 8개과 159명 투입

광주경찰청은 최근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높아진 만큼,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전 기능 합동 단속추진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합동단속추진단 단장은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이 직접 맡으며, 형사·수사·정보 등 8개과·29개 팀 소속 159명이 투입된다.

추진단은 매달 2차례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형사 등 모든 부서역량을 총동원해 두루 수사에 나선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 마약 범죄에 대응하고자 온라인 단속 활동 등 선제적인 수사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 경찰, 검찰, 세관으로 이뤄진 ‘수사실무협의회’를 통해 마약 수사공조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용 마약류 합동점검 단속 활동에도 나선다. 특히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학생대상 마약 음료 협박사건’을 계기로 유사 또는 모방 범죄 발생을 막고자 청소년 마약 범죄 교육 예방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임형택기자

한국인문진흥재단
Korea Human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익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능님께서 재탄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험료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